

---

# 증권회사 역동성 제고를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방안

---

2014.4.2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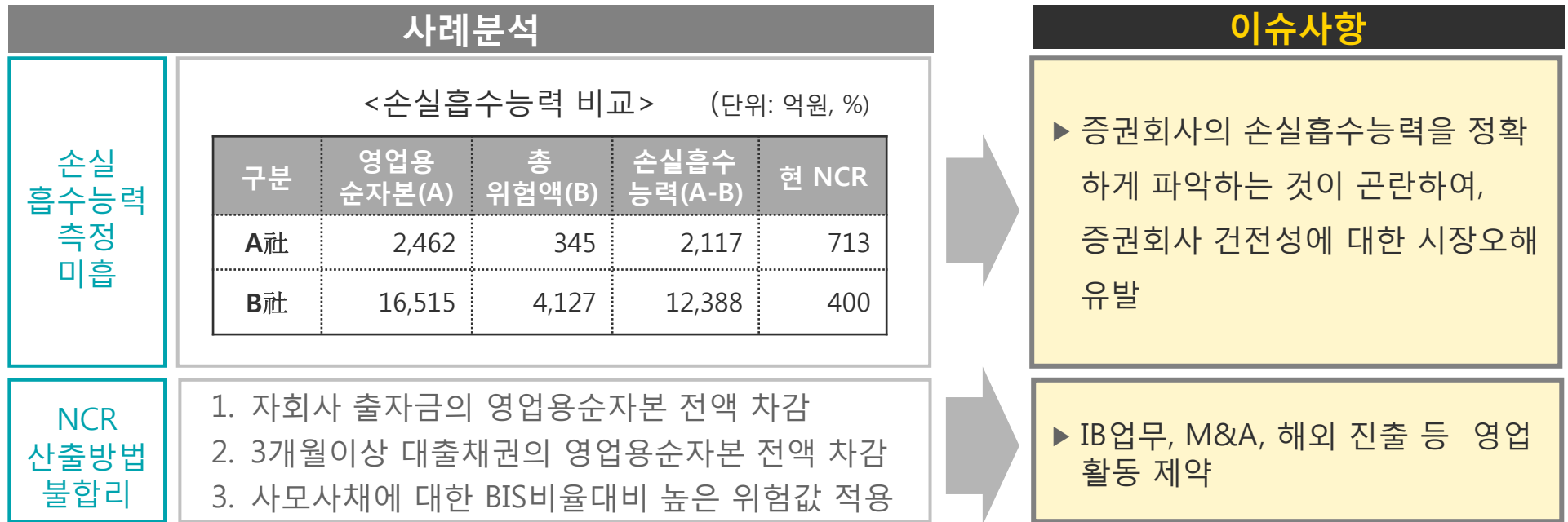
금융감독원

# Table of Contents

I. 추진배경	3
II. NCR 현황 및 문제점	4
III. 개선방안	5
1. 산출구조 개편	5
2. 연결기준 NCR 도입	8
IV. 향후 추진일정	11

# I. 추진배경

'97.4월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기능하였으나,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, 증권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NCR 수정 요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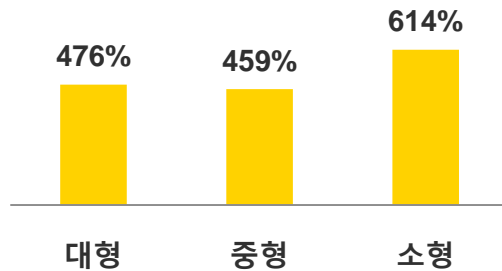
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을 높이고, 영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 
자기자본 규제 개선 필요

## Ⅱ. NCR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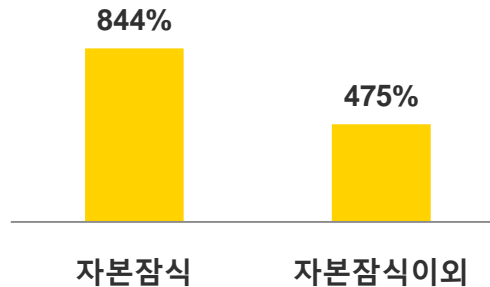
증권회사 60개사 평균 NCR 479% ('13.12월말 기준)

### NCR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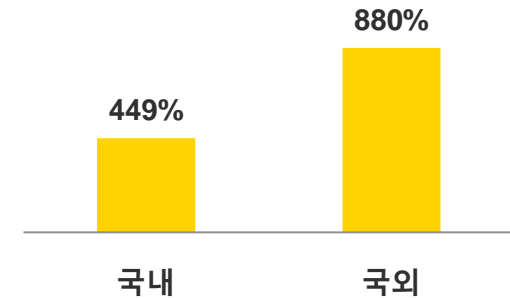
<규모별 분류>



<자본잠식회사별 분류>



<소재지별 분류>



### 문 제 점

#### 재무건전성 측면

##### 높은 변동성

- ▶ 특정거래로 증가된 위험액 대비 과도한 자본의 요구로 자본 활용의 효율성 저하

##### 손실흡수능력측정곤란

- ▶ ELS·DLS 등 증권사의 신용 위험에 대한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 측정 곤란

#### 영업활동 제약 측면

##### 자회사 위험미반영

- ▶ 자회사 출자금액의 영업용순자본 전액 차감되어 M&A 및 해외진출 제약

##### 기타

- ▶ 청산 시 현금화 가능자산의 영업용순자본 불인정 등 NCR 산출방법 불합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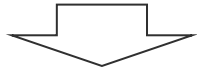
### Ⅲ. 개선방안

## 1. 산출체계 개편

#### 개요

[현행]

영업용순자본  
총위험



[개편안]

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  
업무 단위 별 필요 유지자기자본

산출체계  
개편

#### 시행시기 및 후속조치

- ▶ '15년부터 시행하되 '15년에는 구 NCR과 신 NCR 중 유리한 값을 증권회사의 NCR로 인정하여 업계부담 완화
- ▶ 현 NCR을 활용한 규제들은 산출체계 변경에 상응하는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관련기관에 기준변경 요청

#### 적기시정조치기준 조정

- ▶ 예상치 못한 손실 차감 후 순자본이 법정유지 자본이상이 되도록 경영개선권고기준을 100%로 조정

<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(안)>

구분	권고	요구	명령
NCR	100%	50%	0%

#### 기대효과

- ▶ NCR 변동성 완화 및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 제고
- ▶ 잉여자본을 분자로 뒀으로써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평가 가능
- ▶ 투자 시 NCR 하락에 따른 위험투자기피 현상 완화 및 필요자본 확충 불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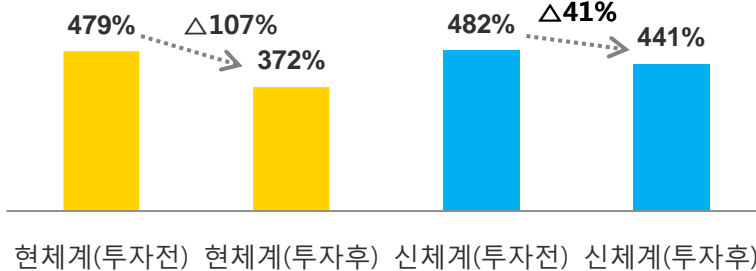
### Ⅲ. 개선방안

## 1. 산출체계 개편\_계속

#### ▶ 산출체계 개편에 따른 NCR Simulation 분석결과 ('13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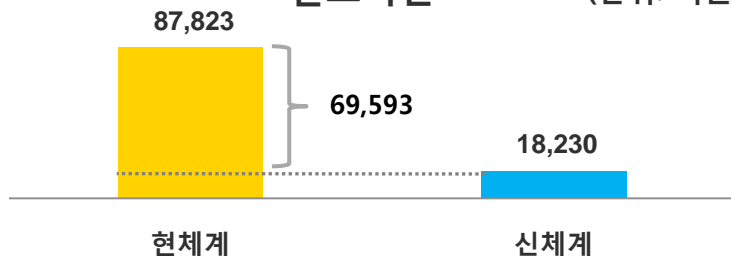
##### 영향분석

###### NCR 변동성



###### 필요자본

(단위: 억원)



##### 세부내용

- ▶ 개편안 평균 NCR(482%)은 현행(479%)과 유사
- ▶ 각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%만큼 투자(주식)을 늘렸을 경우
  - ① 개편안의 변동폭이 현행보다 감소
    - ☞ NCR하락폭(현행) Δ107%p → (개편) Δ41%p
  - ② 투자 전 NCR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자본은 개편안이 현행보다 크게 감소
    - ☞ 필요자본: (현행) 8.8조원 → (개편) 1.8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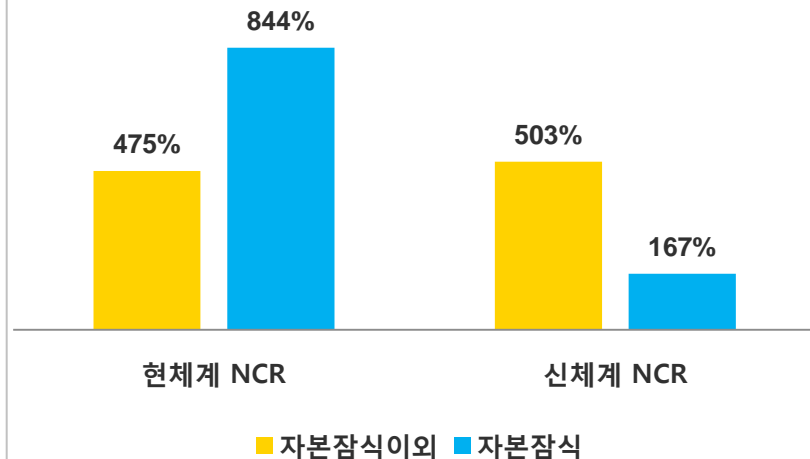
### Ⅲ. 개선방안

## 1. 산출체계 개편\_계속

#### ▶ 산출체계 개편에 따른 NCR Simulation 분석결과\_계속

##### 영향분석

###### 자본잠식여부



##### 세부내용

- ▶ 현행 NCR은 자본잠식회사(844%)가 비잠식회사(475%) 보다 높으나, 개선안은 비잠식회사(503%)가 자본잠식회사(167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

## Ⅲ. 개선방안

### 2. 연결기준 NCR 도입

- ▶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K-IFRS 연결재무제표상 모든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연결기준 NCR을 산출하되 연결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

자회사	연결대상여부 판단요건	연결대상 여부	
非 금융회사	N/A	연결대상에서 제외	
금융회사	연결손실예상금액 > 투자금액(지급보증포함)	연결대상에서 제외	다만, 포괄적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 연결대상 포함
	연결손실예상금액 < 투자금액(지급보증포함)	연결대상 포함	

- **금융회사의 정의** : 통계법 제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"K. 금융 및 보험업"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(신용관리, 전산시스템, 연구조사, 현금수송, 특수목적회사 등)을 영위하는 회사
- **연결손실예상금액** : 자회사 위험액 + 자회사 차감항목 - 자회사 가산항목
- **포괄적 지급보증** : 보증 등을 통해 투자금액이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



## 2. 연결기준 NCR 도입\_계속

### ▶ 연결기준 NCR의 구체적인 산정방법

구분	세부내용
자회사 위험 산정방법	연결기준 NCR 산정 시 모회사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자회사의 자산·부채의 위험값을 모두 반영
연결제외 자회사의 위험산정방법	<p>현행 NCR 산정방법 준용</p> <p>(예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종속회사 : 영업용순자본에서 종속회사 출자금 차감</li><li>2. 유동화전문회사 및 수익증권 : 개별 NCR 위험을 총위험에 합산</li><li>3. 관계회사 : 투자목적 주식의 위험값 적용</li></ol>

## 2. 연결기준 NCR 도입\_계속

### 영향분석

- ▶ 평균적으로 개별기준 NCR보다 연결기준 NCR이 높을 것으로 예상
- ▶ 자회사 유형별(금융회사, SPC, 해외현지법인)로 대표성 있는 7개 증권사 대상 Simulation 결과 연결시 NCR이 약 90% 상승

### 시범운영

- ▶ 기간 : '15.1.1~12.31 (1년간)
- ▶ 대상 : 자기자본 1조 이상 대형사
- ▶ 운영방법 : 연결 NCR을 산출하여 감독원에 CPC등을 통해 매 분기말 2달 이내에 제출

### 연결 NCR 도입

### 기대효과

- ▶ 자회사의 자산·부채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 반영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가능
- ▶ 해외 진출 또는 M&A 영업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증권업계의 활력 제고
- ▶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결자기자본규제제도 도입 및 시행 중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

### 시행시기 및 보고주기

- ▶ 시범운영 후 모든 증권사에 대해 '16.1분기 부터 본격 시행
- ▶ 매 분기말 +45일 이내로 산정 및 보고
- ▶ 매 분기별 적기시정조치 적용

## IV. 향후 추진일정

세부추진단계	'14년				'15년	'16년
	4월	5월	6월	하반기		
1. 규정 및 세칙 변경예고						
2. 산출구조 변경 선택 시행						
3. 연결기준 NCR 시범운영						
4. 산출구조 변경 및 연결기준 NCR시행						